

이르렀고, 항복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는 처자를 죽이고 자결하였다. 윤충은 백제 의자왕義慈王 때의 장수로 의자왕 2년, 642년 8월에 군사 1만으로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했다. 이때 성안의 불만세력의 내응으로 민심이 흉흉한 것을 이용해 매우 치며 김춘추의 사위인 성주 품석에게 항복을 권해 먼저 항복해 나오는 적군을 죽이고 성을 함락시켜 자결한 품석과 그 처자의 머리를 베어 서울 사비성泗泌城으로 보내고 사로잡은 주민 1천은 백제의 서쪽 고을로 옮겨 거주시켰다. 이 전공으로 윤충은 말 20필과 곡식 1천석을 받았다.

금일은 대야성의 막료 사지舍知로서 성주 품석이 그 아내를 간통해 빼앗음에 원한을 품고 있던 중 642년 8월에 백제의 윤충이 대군으로 성을 치자 그와 내통하여 성안의 창고를 불질러 민심이 흉흉케 하는 한편 그에 동조하는 모척毛尺의 농간으로 성문을 쉽게 열어 주어 항복하면 살 줄로 알고 뛰어나간 군사가 많이 살해되게 하고 이윽고 성이 함락되게 하였다. 그 18년 뒤 660년에 신라가 백제를 정복하게 되어 금일은 태종무열왕 앞에 잡혀 끌려나와 크게 꾸짖음을 당한 끝에 사지가 찢겨 강물에 던져지고 모척도 함께 처형되었다.

용석은 사지舍知의 관등으로 대야성을 지키던 장수의 한 사람이었으며 죽은 대야주大耶州의 지방관리로서 선간選干 학열赫熱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 학열이 지방 촌주村主에게 내리던 지방직 11품의 선간이었는데 죽죽이 죽은 뒤 중앙직 9품 급찬級飡으로 추증되고 그 후손은 서라벌에 가 살게 되었다. 중앙직 13품 등 사지舍知로서 대야성주의 막하에 있던 죽죽은 성주 품석이 항복하고자 할 때 적의 계략에 빠지지 말고 결사항전할 것을 권유했으나 품석이 듣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성이 무너지고 품석이 가족과 함께 자결한 뒤에 남은 병사를 수습해 항전하는데 사지 용석이 세궁역진하였으니 항복하여 후일을 기하자고 하자 ‘그대의 말도 옳지만 아버가 나를 죽죽竹竹(대나무 중의 대나무)으로 이름지은 것은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꺾일지언정 굽지 말라 함인데 어찌 죽음을 겁내 항복해 살겠느냐’ 하고 힘써 싸우다 용석과 함께 전사했다. 제목 죽죽부조竹竹不凋는 죽죽이 대나무같이 겨울에도 낙엽져 조락凋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명칭죽죽기도연名稱竹竹豈徒然 : 죽죽이라 이름한 게 어찌 공연하겠는가
이험임위절유견履險臨危節愈堅 : 험하고 위급함에 임하여 절개가 더욱 굳어졌네
자고질풍지경초自古疾風知勁草 : 자고로 질풍이 불어야 굳센 풀 아나니
유전만세요청편流傳萬世耀青編 : 만세를 흘러 전하도록 청사에 빛이 나네
적국공성세막강敵國攻城勢莫强 : 적국에서 성을 치는 형세가 막강하고
원인내응우소창冤人內應又燒倉 : 원한을 품은 자 내응하여 창고까지 불지르네
폐문역전심유장閉門力戰心逾壯 : 문닫고 힘써 싸우는 마음 더욱 굳세니
천재고풍공수장千載高風共水長 : 천년가도 높은 풍모 물과 같이 오래 흐르네

204. 비녕돌진조寧突陳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 15년(646)에 백제의 장군 의직義直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 감불甘勿과 동잠桐岑 두 성을 나누어 공격하였다. 여왕은 김유신金庾信을 보내 막게 하였는데 아군은 고전 끝에 기운이 다하였다. 김유신이 비녕자조寧子를 돌아보며 ‘일이 급하게 되었다. 그대가 능히 분격하여 의표意表를 찌르고 나가 무리의 마음을 채찍질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비녕자가 절하며 ‘마땅히 죽음으로 보답하리이다’ 하였다.

물러나온 비녕자는 하인 합절合節에게 말하기를 ‘나는 국가를 위해서 죽으려니와 나의 자식 거진擧眞은 뜻이 있는지라 반드시 같이 죽고자 할 것이다. 만약 부자가 같이 치명하면 집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그러니 너는 거진과 더불어 내 유골을 잘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 그 어미의 마음을 위로케 하라’ 하고는 곧 말에 채찍을 가하고 창을 비껴들어 적진으로 돌진하더니 몇 사람을 격살하고 죽었다. 거진이 이를 바라보다가 달려나가려 하니 합절이 ‘대인大人이 합절로 하여금 아랑阿郎을 받들고 집에 돌아가 부인夫人을 위로케 하라 하시었는데 지금 임자가 아버지의 명을 등지고 어미의 사랑을 버려서 될 일인가요’ 하며 말고삐를 붙들고 놓지를 않았다. 그러자 거진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구차히 살아 있다면 어찌 효이겠느냐’ 하고 칼을 뽑아 합절의 팔을 치고는 적진으로 쳐들어가 죽었다. 합절이 ‘내 하늘이 무너졌는데 죽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또한 달려나가 적과 칼끝을 나누다가 죽었다. 이를 본 군사가 앞을 다투어 진격해서 크게 무찔러서 적군 3천의 머리를 베며 대승하였다. 여왕이 이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비녕자 등을 예장해 줄 것을 명하고 후히 하사하였다.

비녕자는 신라 진덕여왕眞德女王 1년, 647년에 전사한 용사로 그 출신지와 족성族姓은 미상이다. 백제의 대군이 무산茂山(무주군 무풍면)·감물甘勿(김천시 어모면)·동잠桐岑(김천시 개령면) 등 3성을 공격해오자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1만 군사로 이를 막는데 싸움이 불리해 막강한 백제군에 신라군은 밀리면서 사기가 떨어졌다. 김유신이 누군가 용맹을 드날려 사기를 높일 때라 하여 비녕자에게 그 임무를 주었다. 비녕자는 주저치 않고 오히려 장군이 많은 용사 가운데 자기를 알아주어 그러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라 감격하며 사위지기자士士爲知己者死(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죽음)의 마음으로 적진으로 돌진하여 죽었다. 이를 본 그 아들 거진擧眞은 합절合節에게 당부한 아버지의 유언도 듣지 않고 적진에 돌입하여 싸우다 죽었으며 합절도 그 뒤를 따랐다. 3인의 용맹과 죽음이 신라군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 마침내 백제군 3천여급給을 베고 대패한 백제 장수 의직義直은 혼자 살아 달아났다. 대승을 거둔 김유신은 3인의 시체를 거두어 자기 옷으로 덮어주며 통곡하였고 임금도 이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예로써 반지산反知山에 장사케 하고 그 가족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

제목 비녕돌진조寧突陳은 비녕자가 적진으로 돌입하였다는 뜻이고 진陳은 진陣과 같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이성수적세장위二城受敵勢將危 : 두성이 적을 맞아 형세가 마악 위태로우니

창졸장군력막지倉卒將軍力莫支 : 창졸간에 장군이 지탱할 힘이 부치는데
분격출기능려중奮激出奇能勵衆 : 분연히 의표를 찔러 무리를 책려하여
일신충의영무휴一身忠義永無休 : 한몸의 충의가 길이 이지러지지 않네
촉노수굴위가인囑奴收骨慰家人 : 종에게 유해와 집일 수습 당부하고
돌진횡과불고신突陳橫戈不顧身 : 창을 비껴들고 돌진하여 몸을 돌보지 않았네

합절거진상계사合節擧眞相繼死 : 합절과 거진도 뒤따라 죽어
의가은례장충신宜加恩禮獎忠臣 : 합당한 은혜를 받아 충신으로 장려되었네

205. 필부시집匹夫矢集

신라의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6년(659)에 왕이 당唐과 더불어 백제를 멸하니 고구려가 허점을 틈타 군사를 발하여 칠중성七重城(파주시와 연천군의 적성積城)을 에워쌌다. 현령縣令 필부匹夫가 지키면서 싸우기를 20여일 동안 하니 고구려인이 신라 군사의 힘써 싸우는 것을 보고는 쉽게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겠다는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려 하였다.

이때 신라의 역신 대내마大奈麻 북삽北歙(비삽比歙이라고도 함)이 몰래 사람을 적에게 보내 알리기를 ‘성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힘이 다해가니 다시 공격하면 반드시 항복할 것 이라 하였다. 이에 고구려인이 마침내 다시 싸워오자 필부가 이를 알고 북삽의 목을 베어 성밖으로 던지고 군사들에게 고하기를 ‘충신과 의사는 죽어도 굴하지 않는 것이니 힘써 노력하라. 성의 존망이 이번 일전에 달려 있다’ 하고 주먹을 들어 한 소리로 외치니 병자까지도 모두 꺾기하여 사상자가 반이 넘었다. 고구려인이 바람을 타고 불을 지르면서 성을 공격해 돌입하자 필부가 상간上干(신라의 지방관 12품) 본숙本宿·모지謀支·미제美濟 등과 더불어 사력으로 막아 싸우다가는 그 몸에 화살이 수없이 박히고 피가 그 발꿈치까지 흘러서는 마침내 엎어져 죽었다. 왕이 이를 듣고 심히 애통해 울고 급찬級飡을 증직하였다.

필부는 신라의 서라벌 사랑부沙梁部 출신 장수로 아찬阿飡 존대尊臺의 아들인데 칠중현령으로 나가 있을 때 고구려와 백제·말갈靺鞨이 연합하여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공하므로 태종무열왕이 필부에게 특명하여 이 방면의 방비에 힘을 기울였다. 태종무열왕 7년,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가 이해 10월 군사를 내어 칠중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이에 그가 신라군을 지휘해 힘을 다해 항전하자 고구려군은 성을 떨어뜨릴 수 없음을 알고 돌아가려 하였으나 대내마비삽比歙이 성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군사의 힘이 다했음을 고구려군에 밀보하였다. 이에 필부가 비삽의 머리를 베어 성밖으로 던지고 군사를 독려해 사전을 벌였으나 성은 함락되고 자신도 전사하였다. 제목 필부시집匹夫矢集은 필부가 화살받이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여인래습칠중성麗人來襲七重城 : 고



삼가 冥福을 빕니다



권영기權泳琪 학교법인 장춘학원의 설립자이며 안동과학대학 학장인 권영기 학장이 1월 6일 서울 강남 삼성의료원에서 별세하였습니다.(향년 74세) 빈소는 서울 강남 삼성의료원 영안실 14호이고 분향소는 안동과학대학 학계도서관 1층 로비에 마련되었습니다. 영결식은 1월 8일 오전 10시이다. 장지는 안동 북후 연곡리 선영하이다. 고인은 1935년 6월 6일 안동생으로 성균관대 약학과졸로 안동주조 주식회사 대표를 지냈습니다.

구려인이 와서 칠중성을 습격하니
고수련순력전쟁固守連旬力戰爭 : 굳게 지켜 스무날이 넘게 힘써 싸워 다투는데

불행군기종루설不幸軍機終漏洩 : 불행히도 군사기밀 마침내 누설되어
감차시집경연생堪嗟矢集竟捐生 : 한스러이 화살받이로서 마침내 삶을 버렸네

유래의사기도명由來義士豈圖名 : 고래로 의로운 선비 어찌 이름을 도모하리

위국연구출지정爲國捐軀出至情 : 나라 위해 몸을 던짐 지극한 뜻에서 나왔다네

거전수성종사절拒戰守城從死節 : 막아 싸워 성을 지키다 기어코 절개로 죽으니

야의추작위충성也宜追爵慰忠誠 : 마땅히 벼슬을 추증해 충성을 위로했네

206. 성충옥사成忠獄死

백제의 의자왕義慈王 15년(656)에 왕이 궁인宮人和 황음荒淫을 탐닉하며 잔치와 음주를 그치지 않으니 좌평佐平 성충成忠이 극력으로 충간忠諫하였다. 이에 왕이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자 감히 더 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 옥중의 성충이 음식을 끊고 먹지 않다가 죽기에 임박하여 임금에게 글을 올려 말하였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 법이므로 원컨대 한 말씀을 드리고 죽겠습니다. 신이 항상 시국을 보며 변變을 살피건대는 반드시 병혁兵革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용병用兵을 함에는 반드시 지세地勢를 살펴 택해야 하니, 상류에 처하여 적을 대응하면 가히 보전할 것입니다. 적병이 공격해 오면 육지로는 침현沉峴(전북 완주 운주면 고당리에 있는 큰 재)을 넘지 못하게 하고 물로는 기벌포伎伐浦(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금강하구의 질구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험에險隘한 곳에 의거하여 막은 연후에야 가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이를 거들떠보지 아니하여 마침내 성충은 옥중에서 죽었다. 의자왕 20년(660)에 당唐의 소정방蘇定方이 13만 대군을 거느리고 신라와 함께 백제를 정벌해와 백강白江(금강)과 탄

14면으로 계속